

[보도자료] 주 4일 근무·장기 여름 휴가 “업계에선 깜짝 놀랄 일” 타사와 다른 쿠팡 택배기사 영상 화제

2023. 8. 11.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차원이 다른 퀵플렉서 여름 휴가 이야기 영상 화제
- “이전 회사에선 주 6일 배송, 퀵플렉스하면서 주4일. 업계에서는 깜짝 놀랄 일”
- “남편, 이전 회사에서는 휴가 꿈도 꾸지 말라 했는데, 퀵플렉스하면서 장기휴가도 가능”
- 다른 택배사에는 상상 못했던 휴가 가능한 것은 CLS만의 혁신적인 시스템 때문

다른 택배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쿠팡 택배기사 퀵플렉서의 여름 휴가 이야기가 담긴 동영상이 화제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지난 4일 쿠팡 뉴스룸에 쿠팡 상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인 퀵플렉서의 여름 휴가 이야기를 공개한 뒤 관련 동영상을 10일 공개했다. 11일 별도로 공개된 풀버전에는 퀵플렉서와 그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겼다.

퀵플렉서들은 일반 택배사와 달리 쿠팡 퀵플렉스는 백업기사가 있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주 4일 근무 등 유연한 배송도 가능하다고 증언했다. 대기업 택배회사에서 1년가량 배송하다 퀵플렉서를 시작한지 6개월 된 김민규(30)씨는 “이전 회사에선 월화수목금토 주 6일 배송하고 일요일은 방전됐지만, 퀵플렉스를 하면서 주4일 일하고 3일은 쉰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라며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다.

아내와 함께 출연한 김민중(36)씨도 “이전에는 휴가 쓰려면 담당 구역 배송을 대신해 줄 백업 기사가 필요했는데, 하루 평균 30만 원 가까이 되는 대체 인력 비용을 지불하고 쉬어야 했다”며 “세상에 휴가 쓰는데 돈 내고 쉬라면 누가 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다른 택배기사들은 업계에서 정한 택배 쉬는 날에만 쉬는데 쿠팡 퀵플렉스는 백업해 주는 기사님들이 있어 언제든지 걱정 없이 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아내는 “(대기업 택배회사를 다닐때) 남편이 휴가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쿠팡 퀵플렉스를 하면서 결혼도 하고 제주도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장기휴가로 여행도 다녀왔다”며 김씨를 응원했다.

올해 택배기사 15년차인 노상열(47)씨는 “15년간 택배일을 하면서 인생에 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며 “쿠팡 퀵플렉서를 하고 나서 15년만에 첫 휴식이 생겼다. 다른 택배사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CLS 관계자는 “쿠팡은 택배업계 최초로 수천명에 달하는 분류전담 인력을 운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배송기사분들이 쉬고 싶을 때

실 수 있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앞으로도 새롭고 혁신적인 택배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영상 링크: [택배 기사 15년 만에 첫 휴가 내 인생 최고의 플렉스, 쿠팡 킥플렉스 \(Full ver.\) - YouTube](#)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